

집에서 즐기는 문화생활

대인예술야시장, '뮤직 온-라인' 페이스북 실시간 생중계 전일생활문화센터 '집콕프로젝트', 매듭공예·천연염색 등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바느질·요리·디자인 프로그램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집안에서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가 눈길을 끈다.

올해 개장이 무기한 연기된 대인예술 야시장은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한다. 전일생활문화센터는 '집콕 프로젝트'를 매개로 시민들이 DIY키트를 보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마련했다.

먼저 2020대인예술야시장 개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되면서, 시장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선보인다.

매주 야시장에서 진행했던 공연프로그램 '에인열전'은 '뮤직 온-라인'으로 이름을 바꾸고, 코로나 19로 무대에 설 기회를 잃은 지역공연자들과 시민들을 위해 야시장 개장 전까지 비대면 온라인 공연을 진행한다. 시장의 다양한 공간을 배경으로 열리는 '뮤직 온-라인'은 대인예술야시장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첫 공연은 지난 12일 대인예술야시장 안에 있는 드러머스 공연장에서 열렸다.

그루비한 리듬 위에 청춘들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소울 팝밴드 스왈루피가 무대에서 올라 R&B소울 스타일의 음악을 들려줬으며, 이어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뮤지션들로 구성된 앤드류 블라스블룸 프로젝트 밴드가 뉴에이지 웨스턴 스타일의 음악을 선사했다.

공연 영상은 대인예술야시장 공식 유튜브

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으며 다음 공연은 26일 만날 수 있다.

야시장이 열리는 매주 토요일 'Break the walls콘서트'를 진행했던 대인예술야시장 다문화 커뮤니티 '드림머스'는 오프라인 콘서트를 중단하고, 지난 3월부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위로와 연대'를 주제로 한 공연을 매주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인예술야시장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byeolja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동구청과 광주동구행복재단이 운영하는 전일생활문화센터는 비대면 프로그램인 '집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집콕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 향유의 기회가 줄어든 시민들을 위해 비대면 생활문화 체험강좌를 운영한다. 프로젝트는 비대면으로 실시되며 전일생활문화센터 블로그를 통해 강좌 신청을 받아 체험키트를 발송하고, 온라인 영상을 통해 함께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7일부터 '마크라메(매듭공예) 마스크 목걸이' 강좌 수강생을 모집중이며, 앞서 집안 인테리어 미술품을 만드는 '나의 힐링 바구니', '천연염색 건강마스크 만들기' 등이 열렸다.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선착순 150명을 모집한다. 수강생은 생활문화센터 블로그에 결과물을 게시하고 체험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집콕 프로젝트의 추후 일정은 전일생활문화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jilcc4245>) 또는 인스타그램(jilcc4245)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화상 회의 프로그램(ZOOM)을 이용해 진행한다.

먼저 '셰프 찰스와 만드는 '토마토 파스타'를 주제로 열리는 청소년요리 클래스는 오는 23일 오후 6시에 열린다. 참가자는 19일까지 신청받는다. 프랑스 요리 셰프인 현현키친 대표 찰스가 강사로 나서, 파스타를 직접 만들어 프랑스 요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센터는 또 9-11월 3차례에 걸쳐 바느질, 요리, 디자인 등 생활 기술을 익히며 적성과 소질을 이해하는 온라인 진로 탐색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오는 25일 오후 6시에는 '바느질 그림, 옷 수선하기', '베를로 만드는 생활인테리어(컵 받침 짜기)', '이면지로 북바인딩(나만의 공책 만들기)'을 진행한다.

10월 30일에는 '한기요리, 샌드위치 또는 파스타', '내 이름으로 로고 디자인', '나무막대로 건축원리, 텐세그리타' 등의 프로그램을 열며, 11월27에는 '한 손가락으로 만드는 음악, 원핑거 뮤직', '커피가루 활용 메이킹'을 진행한다.

10월 30일에는 '한기요리, 샌드위치 또는 파스타', '내 이름으로 로고 디자인', '나무막대로 건축원리, 텐세그리타' 등의 프로그램을 열며, 11월27에는 '한 손가락으로 만드는 음악, 원핑거 뮤직', '커피가루 활용 메이킹'을 진행한다.

광주 지역 청소년 및 성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



'나의 힐링 바구니'



'베를로 만드는 컵 받침'

전남대 국어문화원
'광주시민 우리말 겨루기 한마당'
'국어문화 큰잔치'

574돌 한글날을 맞아 전남대 국어문화원(원장 손희하·국어국문과 교수)이 오는 10월 9일 오후 1시부터 '제6회 광주시민 우리말 겨루기 한마당'과 '국어문화 큰잔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말과 글을 풍요롭고 바르게 사용하자는 뜻에서 마련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상공간을 활용, 비대면으로 치러진다.

우리말 겨루기 한마당은 광주시립미술관

2층 강당에 본부를 두고 화상회의 공간에서 진행한다. 각각의 장소에서 'KBS 도전 골든벨'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필기구(스케치북과 보드마카 등)를 준비해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접속하면 된다. 접수는 10월 5일까지다.

'우리말 말하기 대회'와 '국어문화 참여 행사'로 나누는 국어문화 큰 잔치는 관련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국어문화원 누리집에 응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말 말

하기 대회는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광주전남 사투리 말하기 대회'로 펼쳐지며 국어문화 참여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에게는 기념품을 주며 우승자에게는 전남대 국어문화원장상과 함께 시상금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www.korjnu.kr/>)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2-530-0313.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헨젤과 그레텔'이 오는 19일 오후 3시 광주아트홀에서 무관중으로 열린다.

이야기가 있는 동화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내일 광주아트홀 공연 페이스북 생중계

이야기가 있는 어린이 동화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이 오는 19일 오후 3시 광주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공연은 광주아트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wangjuarthall/live/>) 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한다.

이번 공연은 (사)빛소리오페라단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특성화 극장 운영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그림 형태의 동화를 원작으로 했다.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은 오페라 작곡가 헨델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을 바탕으로 독일 민요의 친근한 멜로

디로 따뜻한 가족애를 그렸으며 아이들과 어른 모두를 위한 작품으로 재구성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각색한 이 작품은 스토리텔러의 이야기풀이 형식으로 진행되며, 재미있는 개그소재와 클래식 음악의 조화를 통해 마법과 같은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총감독은 최덕식(빛소리오페라단장)이 맡았으며, 지휘 및 연출은 박미애(광주대 교수)가, 음악코치 및 반주는 천현주(피아노)가 한다. 무대에는 장희경(일렉트릭), 이유정(신디사이저)을 비롯해 윤희정·장희정·조정화·양인영·박정희 등이 오른다. 문의 062-227-744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누구나 어디서나 '공예로 통·통'

공예주간 기획프로그램 선정 '보임셴' 19일부터 기획전

쓰임새가 좋고 만들새가 아름다운 물건을 곁에 두다.

2020 공예주간(18일~27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일상에서 공예를 즐기는 방법을 공유하고 공예의 즐거움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예 축제다.

담양에 자리한 공예미술관 보임셴(담양군 대전면 신통길 79-3)이 공예주간 기획 프로그램에 선정돼 의미있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김미선 작 '인연'

보임셴은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기획전 '공예로 통·통(工藝路通·統)'을 진행한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하나돼 공예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일반 대중들이 좀 더 공예와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주제다.

전시에는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예 분야 명장·명인 5인을 초청했다. 기영락(목공예·대한민국 명장), 김미선(한지공예·담양군 명인), 설이환(목칠공예·대한민국 명장), 오석심(종이공예·

광주시 공예명장), 유영선(금속공예·담양군 명인) 작가다. 이들은 자신의 특장을 발휘한 예술성 있는 작품과 함께 직접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쓰임새 있는 다양한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19~20일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대나무'를 활용해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시간도 갖는다. 사전 신청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문의 061-383-647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